

교토의 전통 공예

진 짜에 대한 조건, 그것은 교토인의 자랑입니다. 일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 보고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풍부하게 되는 것. 교토의 직공은 옛부터, 어떤 물건에도 「미」를 추구해, 그것을 닦는다고 하는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승해져 온 전통의 확실한 기술은, 보는 사람 모든 마음을 매료합니다.



인형

교토에서 만들어져 옷(기모노)의상을 입힌 인형을 경인형이라고 부릅니다. 일체의 인형을 만드는데, 두사, 머리 카락부사, 수족사, 소도구사, 옷 매무새사라고 하는 몇 사람의 직공들이 각 부분을 담당. 교인형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달리고 있는 것도, 이 탁월한 기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원은 옛날, 조롱 시대의 토우나, 고분 시대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들은 신앙이나 주술의 대상으로서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헤이안 시대에 가까워지면, 인간의 형태를 한 「인형(하나)」 등, 역병이나 재앙을 떨치는 목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주술이나 부적적인 요소가 자꾸자꾸 희미해져와, 점차 소녀들의 놀이 도구로 변화한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헤이안 시대가 되자, 사랑스러운 인형으로서 귀족의 희군 등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교인형이 있습니다.



직물

니시진 방직/경우선

일본에 있던 직물의 역사는, 헤이안 시대 이전에 야스시 씨가 교토·산성의 땅을 개척해 양잠 기술을 가져왔던 것이 시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시진 방직이란, 우선 실을 물들여 나중에 짜는 「실을 미리 염색」의 기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니시진 방직의 특징은, 다품종소량 생산인 것. 뛰어난 디자인의 창조력과 직물로서의 표현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주 보는 니시진 방직에는 「노 의상」이 있어, 옷감으로부터 실이 떠올라, 볼륨감 충분히 호화로운 분위기를 냅니다. 한편경우선이란, 실은 풀로 불리는 가는 풀의 선을 방파제로 해, 나란히 한 색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하는 것에 의해, 다채로운 모양 염색을 가능하게 한 것. 에도시대, 교토의 화가·미야자키 유우젠사가 개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매우 고도의 기술이며, 우선 염색을 넘는 염색의 기술은 지금도 태어나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이

키요미즈야키/경소

키요미즈야키와쿄야키란, 교토에서 만들어지는 도자기의 총칭. 옛날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지만, 근래에는 거의 같은 구이를 가리킵니다. 아즈시모모야마시대말에 처음으로 만들어져 에도시대부터 발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고도의 기법의 레벨이 오르는 한편으로, 옛날과 변함없는 수작업으로 지금도 정성 담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토에는 현재도 300채 이상의 도자기 굽는 곳이 있습니다만, 키요미즈야키는 그 행정이 거의 수작업이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압도적으로 적은 점이 유감입니다. 그러나, 교토의 토양에 길러져 독특한 아름다움, 따뜻함을 가져, 일본의 구이 중에서도 최고봉에 자리매김을 한 키요미즈야키·쿄야키. 전통을 계속 지키는 노력은, 제도 기업, 도자기 굽는 곳, 도예 작가들의 손에 의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화

6세기 중반에 조선으로부터 전래했다고 하는 문자 목판이, 그 유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판화는, 화가, 조사, 점사의 공동 작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조각해 인쇄한다고 하는 목판화는 나라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전래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낡은 기술입니다. 그 전통이, 책을 만드는 출판 문화와 결합되어, 거기로부터 발달했던 것이 경판화인 것입니다. 에도시대가 되자, 다양한 책의 삽화로서 판화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하라 니시츠루의 「그림책 호색 일대담」 등은 유명합니다. 메이지가 되자 한층 더 기술의 향상되어, 부채나 집안 등에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경판화의 특징은, 예를 들면 머리카락 1개 1개까지 선명하게, 게다가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안쪽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부채

부채의 기원은, 헤이안 시대의 일본. 훌쩍하고 얇은 나무의 판의 불구자를, 실로 하나로 철한 것이 가장 최초입니다. 이 형상이 보다 세련 되어 궁중 여자들의 사이에 유행합니다만, 선승에 의해 중국에 전해진 것으로, 원래의 나무의 판을 엮은 양면에 종이를 붙인다고 하는 스타일에 변화를 이룹니다. 무로마치 시대가 되자, 그 형태가 「당선」이라고 되어 일본에 역수입되니까 독특합니다. 노나 광연등의 예능에 있어, 부채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됩니다만, 에도시대부터는 서민도 부담없이 갖게 되었습니다.

상감

아시아 서부의 지중해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카스로부터 전해졌다고 전해지고 있는 경상감. 모양을 본떠, 철웃감에는 끼워넣은 공예품입니다. 실크 로드를 거쳐 중국에 들어가, 일본에는 고분~아스카 시대가 되어 전해졌습니다. 교토에서는 에도시대에 활발하게 사용되었지만, 메이지의 폐도령으로 수요가 단번에 줄어들어, 또 그사이 업자가 감소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통의 불을 지우지 않으려 하는 직공들은, 장식품이나 장신구 등에 형태를 바꾸어 그 기술을 다음의 세대로 연결해 갔습니다. 금속상감, 목상감, 도자상감의 삼종이 있어, 정창원에 있는 칼의 몸체나, 나라의 약사사 본존의 손바닥, 불족, 그리고 평등 원봉황당의 문패들이 유명합니다.